

성평등을 서초에 담다

2020년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자료집

2020년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자료집

성평등을 서초에 담다

CONTENTS

04 ◀ 05 ◀ 09 ◀ 35 ◀ 75 ◀ 101

발간사

센터 및 사업소개

네트워크사업

교육사업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풀뿌리활동가가
전하는 응원 한 마디

2020년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의 발자취를 담은 자료집을 펴내며

세계가 공감하는 이슈 중 하나가 ‘성평등’입니다.

전 세계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평등 실현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초구 역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안전시스템 구축, 여성의 정책 참여를 위한 조례개정 등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시범사업’에 서초구가 선정되어 올해 8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후 약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센터를 알리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성평등활동가 지원,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연구사업의 기초를 쌓으며 서초구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 사태로 인해 많은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 진행에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성평등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의 기회로 삼아 활발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성인지감수성, 네트워킹, 변화, 지속가능’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서초구의 성인지 변화와 확산을 이끌어가는 「성평등활동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높은 성평등 인식과 관심의 결실인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대표 박현경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서울시 성평등정책사업에
서초구가 선정되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website | <http://seochoequality.org>

서초구 성평등활동센터 소개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성평등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자치구 서초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서초구 성평등활동센터



서초구 성평등활동센터 사업소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관내 풀뿌리 성평등활동가와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합니다.

성평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성평등 인식 향상에 기여합니다.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서초구의 성평등한 자치구 실현과 정책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성평등 활동의 기반이 되는 현장 맞춤형 연구사업과 다양한 성평등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성평등 지역문화 조성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민 참여형 사업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지역문화 조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네트워크사업

- | | |
|-----------------------|----|
| 1. 성평등활동가 모집 및 인프라 지원 | 11 |
|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 15 |
| 3. 캠페인 | 25 |

네트워크사업

1. 성평등활동가 모집 및 인프라 지원

서초구 성평등활동가를 찾습니다

1. 성평등활동가 모집 및 인프라 지원

성평등활동가 모집 및 인프라 지원
서초구 성평등활동가를 찾습니다

서초구 활동가들과의 만남

서초구 풀뿌리활동가와 활동단체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뜻깊은 일을 하는 활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더 힘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돋는 일은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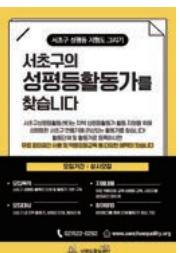
사업개요

- 목적** 서초구 성평등 풀뿌리활동가 모집 및 지원
- 기간** 상시
- 대상**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활동가 및 활동단체, 동아리 등
- 방법** 풀뿌리활동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활동가,
활동단체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소통하며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01 활동가모집

성평등활동은 다 함께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성평등활동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활동가를 모집하였습니다. 각 단체를 방문하고 연락하여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활동가를 꿈꾸는 구민 누구라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활동가들에게는 역량강화 교육과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모집된 활동단체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인프라지원

풀뿌리활동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의공간입니다.
이를 위해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회의공간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인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소규모 회의에 매우 쾌적한 환경입니다.

언제든 연락해서 회의공간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해주세요. 02.522.0292



네트워크사업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미래의 성평등활동가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미래의 성평등활동가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미래의 성평등활동가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성평등활동은 성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사이에서 성평등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여학생들은 학교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고, 남학생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의 성평등 인식 현황을 알아보고,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가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과정
목적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활동가 양성을 통한 성평등활동 활성화
기간	2020.10~11.
대상	유스센터 소속 대학생 멘토 및 인권 동아리 소속 청소년
방법	1) 대학생 :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 키우기 및 성평등한 관계 맺기 2) 청소년 : 학내 성차별적 문화 알기 및 여성의 사회진출 차별
만족도	1) 대학생 : 4.6/5.0(전원 참여) 2) 청소년 : 4.0/5.0(전원 참여)

교육 커리큘럼

일시	대상	회차	시간	강의 내용
10.31(토)	대학생	1강	10:00~12:00	젠더폭력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이해 ·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 키우기
11.07(토)		2강		성평등한 청소년 지도법 · 성평등한 관계 맺기 · 성평등한 교육현장 실천 방안
11.07(토)	청소년	1강	10:00~12:00	학내 여성폭력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이해 · 피해자 중심의 관점 이해
11.14(토)		2강	10:00~12:00	여성의 사회진출 차별 · 여성의 사회진출 차별 및 현황 이해 · 토론] 여성할당제는 성평등한 제도인가, 성차별적 제도인가?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미래의 성평등활동가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01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 키우기

대학생
새내기 활동가
양성교육

10월 31일과 11월 7일, 2회차에 걸쳐 청소년과 활동하는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이현혜 법무법인 해송부설인권연구소 소장님의 젠더폭력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과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없애야 할 시각, ‘피해자다움’

학교와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왜 끊이지 않는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사회 속에 퍼져있는 성차별적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아무리 엄한 처벌을 내려도, 우리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면 관련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생 중 한 명은 수업 중 “우리나라에서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군대식 문화다.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조직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평등한 관계를 위해 효율성을 포기하고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강사님은 “기업 구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식의 문제다. 수직적인 구조지만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면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은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야 할 노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3단계

교육생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를 점검하기 위해 강사님이 교육생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늦은 밤 택시를 타는 것이 어떤 지에 대한 질문에 남자 교육생들은 “무섭지 않다. 대중교통이 끊기면 자주 택시를 타고 간다.”고 대답했지만, 여자 교육생들은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에 친구와 헤어진다.”, “늦은 밤 약속은 잡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사님은 이게 바로 사회적 위치로 인한 차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불법촬영과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강요된 동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경계존중을 실천해야 하는데, 나의 경계와 타인의 경계는 다르며 타인의 경계를 침범할 때는 반드시 팬찮은지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해야한다는 점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소감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심도 깊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판례를 알게되니, 관련 법률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토론활동] 성평등한 관계 맺기

두 번째 수업은, 성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초등 성평등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용마초등학교의 박덕현 선생님이 진행했습니다.

19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미래의 성평등활동가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유스센터에서 청소년 동아리의 멘토를 맡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였기
에 교육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권걷기’로 배우는 사회적 위치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특권걷기 게임으로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특권걷기 게임은 사람들 각자의 사회적 특권에 따른 영향력을
이해하는 게임으로, 롤플레이 게임 중 하나입니다. 교육생들은 ‘졸업
을 앞두고 대기업에 취업한 대학생(26세, 남)’, ‘한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대학생(24세, 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회적 특권
혹은 불이익의 목록을 읽어주면, 교육생들은 자신의 신분 정의에 따라 한
걸음 전진하거나 후퇴하며, 특권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성평등한 관계를 맺는 법과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성별로 나누지 않기’, ‘차별적 언어 바꾸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나
누며 함께 논의했습니다.

청소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외모를 칭찬 요소로 활용하지 않기 등 청소년들의 멘
토로서 실질적인 지도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평등하게 학생과 함께 맷기를 통한 안전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차별적 언어바꾸기



솔직한 고민에 담긴 가능성

강의 막바지에는 익명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
생들의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과 라
포를 형성하기 위해 가벼운 스킨십(하이파이브)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일까?”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불편하게 느
끼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 전에 먼저 청소년의 의사
를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교육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느끼게 된 것’,
‘애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학생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외모에 대
해 지적하지 않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소감



교육생1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교육생2

오늘 배우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많지만,
아직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센터 담당자

이번 교육이 ‘성평등한 청소년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02

청소년 새내기 활동가 양성교육

성차별적 문화 알아보기

11월 7일과 14일에 인권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과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간은 이현혜 법무법인 해송부설인권연구소 소장님과
학내 성차별적 문화와 젠더폭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미래의 성평등활동가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학교가 학생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우리사회는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젠더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

- 이게 그만 끌어. 무슨 건 여자아이들이거나 하는 거야.
- 남자는 밤에 밖에서 놀 수 있지만 여자는 안돼.
- 공부 열심히 해야 멀쩡한 배우자. 멀쩡한 직장을 들어갈 수 있어. 남자는 정상이 올라가야지.
-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해. 내가 남자라는 걸 보여줘.
- 여자에게 폭력하고나. 여자를 폭폭한 여자 부모스러워해.
-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줘야지.
- 남자는 권리가 있어야지.
- 남학생은 성적호기심을 가진다는 건 당연해. 근데 여학생은 좀...

이런 메시지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강사님은 교육생들에게 학교에서 남학생(혹은 여학생)이어서 받은 차별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교육생들은 자유롭게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때는 남학생만 부른다”, “여학생은 당연히 꼼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등 교실에서 흔히 들었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강사님은 교육생들이 받았던 메시지가 젠더(gender)에 기반한 고정관념이며,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와의 차이를 짚어주시며, 젠더에 의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의 인기 이모티콘에서도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젠더적인 시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주목받는 판례 속 성인지감수성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젠더폭력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년 전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성희롱이 최근에는 처벌을 받은 사건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향상된 결과에 따른 판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와 사회 속 성차별적 문화로 젠더폭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토론활동] 여성의 사회진출 차별

두 번째 수업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전에 교육생들이 직접 듣고 싶은 교육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교육생들이 선정한 주제는 ‘여성의 사회진출 차별’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백양초등학교 정윤식 선생님이 진행해주었습니다.



‘남자’의 일, ‘여자’의 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성의 사회진출 차별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들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차와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소위 ‘남초’ 직렬에 진출한 여성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사례 등 다양한 사회 속 차별현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뜨거운 감자, ‘여성할당제’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여성할당제는 성평등한 제도일까, 성차별적인 제도일까?’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교육생들은 앞서 들었던 수업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먼저, 얼마 전 기업에 인턴 면접을 보고 왔다는 한 교육생은 면접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할당제는 성차별적인 제도이며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성할당제는 성차별적인 제도이다. 여성할당제 때문에 불합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새내기 성평등활동가 양성

이에 한 교육생은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이다. 여성 의원의 비율이 너무 낮아 국회가 가지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여성할당제를 모든 직렬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여성할당제를 특정 직렬에만 적용하는 것이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격렬한 토론을 마친 후 선생님은 같은 업적을 쌓더라도 여성 과학자가 남성 과학자보다 과소평가되는 현상인 ‘마틸다 효과’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남성이 겪는 사회진출의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2,30대의 남성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공감을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한 사회는 남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소감



수업 시간과 토론 시간이 재밌고 유익해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어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었지만, 남성의 입장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2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게 놀라웠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성평등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센터 담당자

네트워크사업

3.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사용 돌아보기

3.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사용 돌아보기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사용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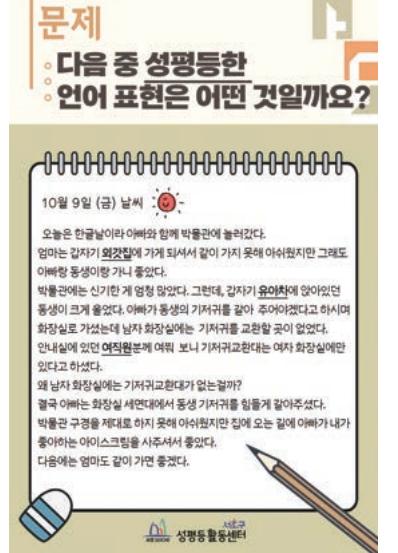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우리의 언어생활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평등한 언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사업개요

- 목적** SNS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의 생활 속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을 되돌아보고 성평등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기간** 2020.10.8.(목)~10.25.(일)
- 대상** SNS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1인 1회 참여)
- 방법** 예문에 나타난 단어 중 평등한 언어표현을 선택하여 댓글 작성, 정답자 추첨하여 경품지급

다 함께
성평등한
언어를
찾아보세요.



10월 9일 (금) 날씨 맑음

오늘은 한글날이라 아빠와 함께 박물관에 놀러갔다.
엄마는 갑자기 외갓집에 가게 되어서 같이 가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빠랑 동생이랑 가니 좋았다.
박물관에는 신기한 게 엄청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유아차에 앉아있던
동생이 크게 울었다. 아빠가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겠다고 하시며
화장실로 가셨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곳이 없었다.
안내실에 있던 여직원분께 여쭤 보니 기저귀교환대는 여자 화장실에만
있다고 하셨다.

왜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가 없는걸까?
결국 아빠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동생 기저귀를 힘들게 갈아주셨다.
박물관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집에 오는 길에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좋았다.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다.

Q. 밑줄 친 단어 중 성평등한 언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A. 유아차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평등한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캠페인 기간동안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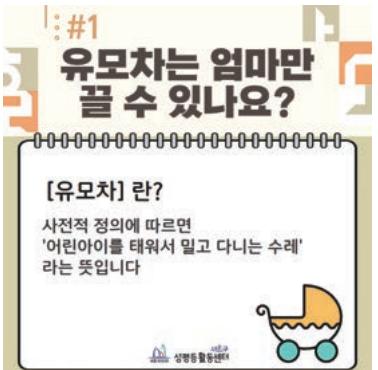
3.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사용 돌아보기

01

유모차는 엄마만 끌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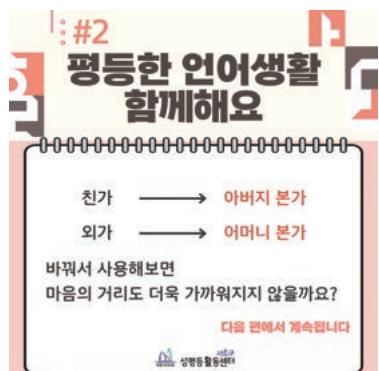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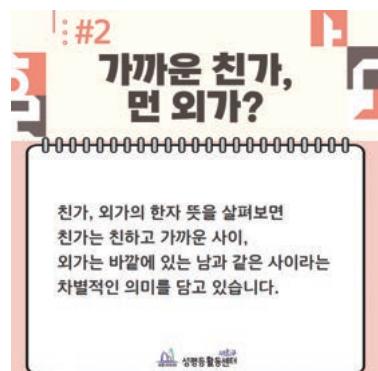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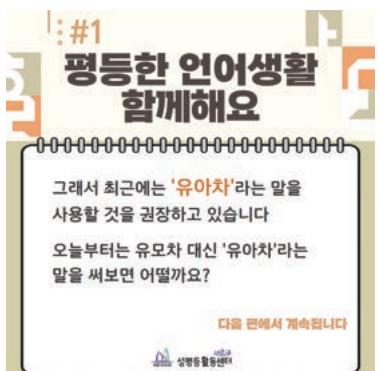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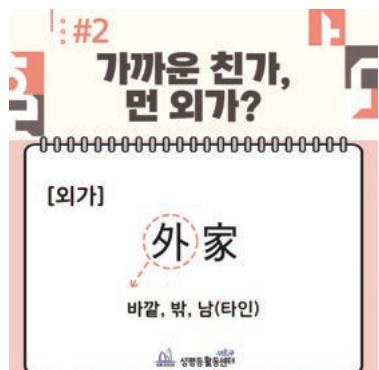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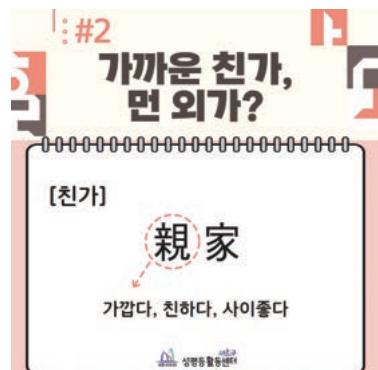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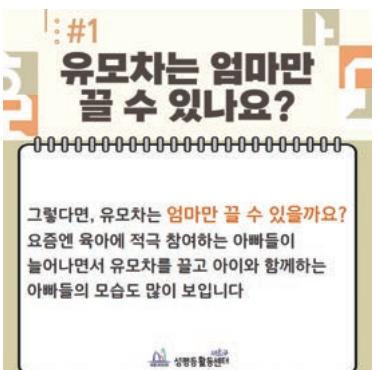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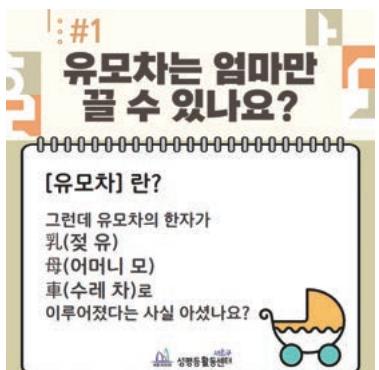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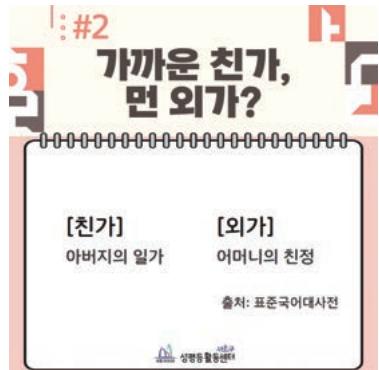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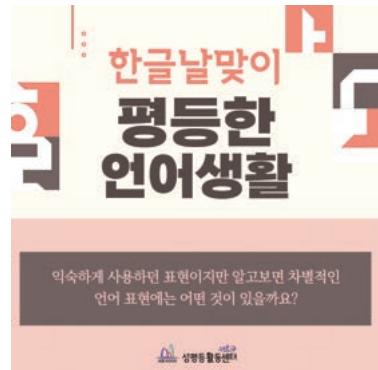
카드뉴스



02

가까운 친가, 먼 외가?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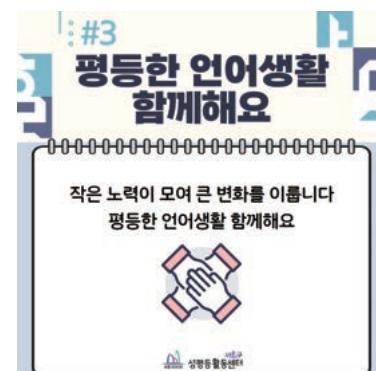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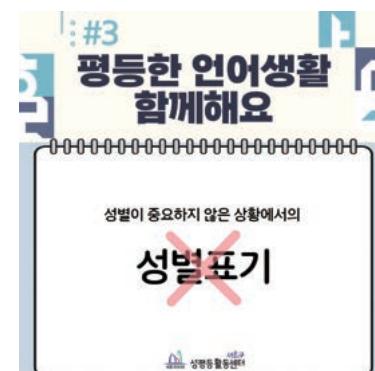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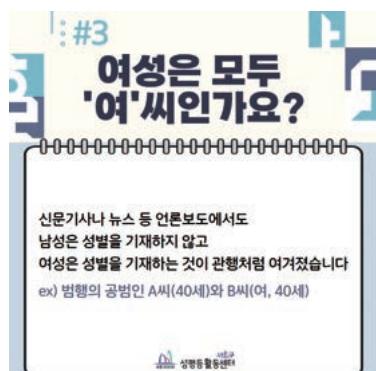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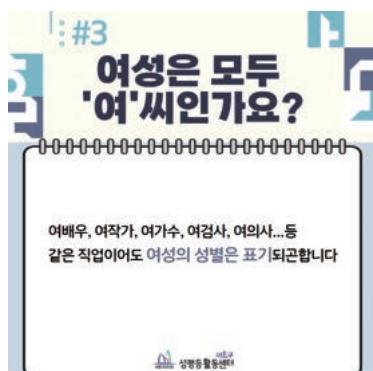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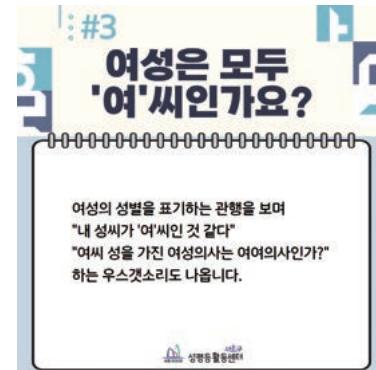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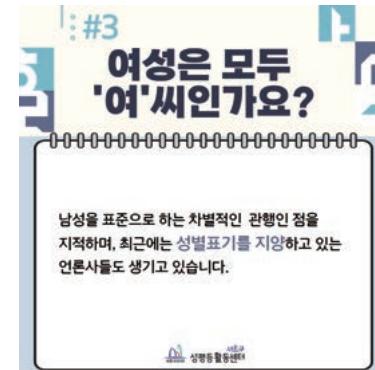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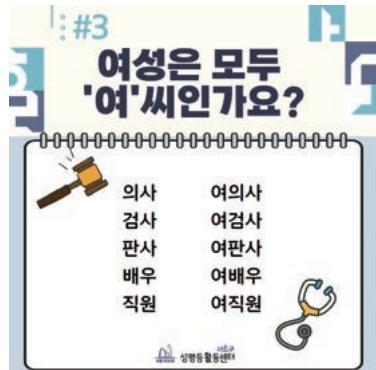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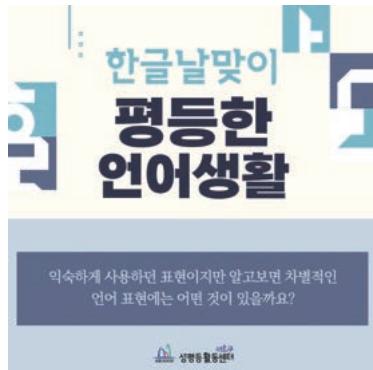
3.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사용 돌아보기

03

여성은 모두 '여'씨인가요?

카드뉴스



3. 한글날맞이 평등한 언어생활 캠페인

온라인 상의 뜨거운 반응

첫 SNS 캠페인이었음에도 댓글 140개, 좋아요 116개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차별적인지 모르고 써왔는데 앞으로는 고쳐야겠다’, ‘좋은 정보를 알게 되어 뜻깊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차별적인 언어에 대해 많은 대중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미경
유아차

고혜덕
정답은 유아차!!
알게모르게 여성을 차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바꿔가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소현
정답은 유아차!! 기존의 유모차는 어미 모가 사용되어 주양육자를 여성으로 은연 중에 단정짓고 있지만 성평등 언어인 유아차는 주양육자의 성별을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더 많은 성평등 언어와 성평등 표현으로 평등한 사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인
정답은 유아차입니다! 유모차는 어미모자를 사용해 평등육아 개념에 맞지않아 어린이 중심의 단어인 유아차를 사용하는게 맞아요~!

이번 캠페인은 언어가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가치관을 담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작은 차별을 바꾸어나가는 것에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육사업

- | | |
|----------------------------|----|
|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 37 |
|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49 |
| 3. 성평등 전문가 양성교육 | 61 |
| 4.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무료 성평등 교육 | 65 |
| 5. 슬기로운 양성평등교육 | 69 |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꿈꾸는 시간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꿈꾸는 시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반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초·중등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 내 성별 갈등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는 상황에서 실제 교육현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는 교육현장으로 파견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며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목적	지역 교육활동가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통한 성평등한 교육현장 조성기반 마련
기간	2020.10~11.
대상	서초구 관내 교육활동가
주제	1) 기본교육 : 성평등 의식 키우기 및 성평등한 교육현장 실천 2) 심화교육 : 사이버 성폭력 이해/혐오표현 이해/성평등한 교육현장 만들기
만족도	1) 기본교육 : 4.6/5.0(130명 응답/132명 참여) 2) 심화교육 : 4.0/5.0(39명 응답/40명 참여)

교육 커리큘럼

일시	대상	회차	시간	강의 내용
10.27(화)~ 10.29(목)	교육 활동가	1강	13:00~15:00 15:00~17:00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 학내 성인지감수성 이해 · 성평등한 교육현장 이해
11.02(월), 11.05(목)		2강		양성평등 정책 및 성평등한 교육현장 실천 · 양성평등 법제 및 정책 이해 · 성평등한 교육현장 실천
11.10(화)		1강		사이버성폭력 이해 및 대처방안 · 사이버성폭력 이해 및 사례 탐구 · 사이버성폭력 구조 이해 및 대응법
11.11(수)	양성평등 강사단/ 역사여성 인물강사단	2강	13:00~15:00	혐오표현 이해 및 예방방안 · 혐오표현 경험 및 영향 이해 · 해외 및 국내 규제방안 이해
11.12(목)		3강		성평등한 교육현장 만들기 · Z세대 특성 이해 · 학교 조직 변화 이해 · 질의응답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꿈꾸는 시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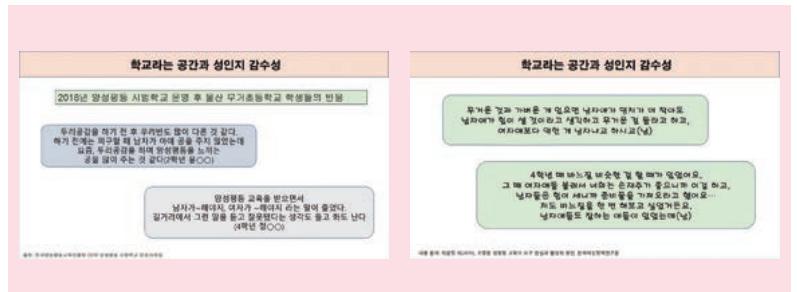
성평등 의식 키우기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활동가 대상 성평등 기본교육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청인원이 많아 5개의 팀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이해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님과 이현혜 법무법인해송부설인권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석윤미 신동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세 분의 강사님으로부터 성평등 의식 키우기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해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님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性) 문제를 바라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을 ‘젠더 렌즈’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젠더 렌즈가 차별과 왜곡 없이 평등하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평등, 교실로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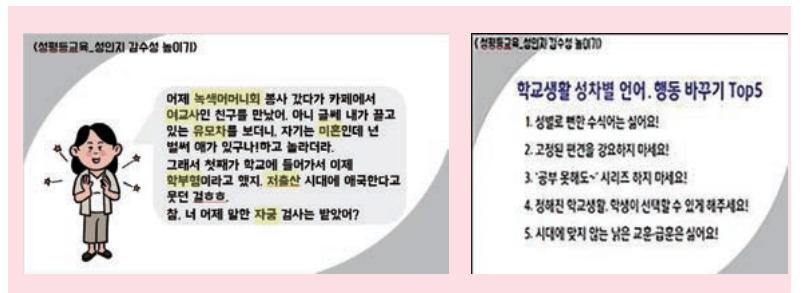
학교와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왜 끊이지 않는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사회 속에 퍼져 있는 성차별적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아무리 엄한 처벌을 내려도, 우리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면 관련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사님은 실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험한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이야기하며, 학교라는 공간에 성인지감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양성평등 시범학교로 선정된 한 초등학교를 소개해주셨는데요, 교실에서 만큼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좋았다는 학생들의 소감을 통해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 주는 악영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실 속 성별 고정관념 깨기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성평등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윤미 선생님은 교육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각자료 사용하지 않기, 단어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교육생들도 공감했습니다.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업 자료를 만들면 좋다는 팁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미지 사용이 자유로운 사이트를 공유하고 직접 자료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교육 후의 활용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소감



성인지감수성이 왜 중요한지 잘 알게 됐어요.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게 느껴졌어요.
성인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배우고 싶네요.



온라인 교육이었지만, 교육생의 얼굴에서 일에 대한 열의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육생들의 열정이 만들어 낼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꿈꾸는 시간

02

두 번째 수업은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님의 ‘양성평등 정책과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및 학교 현장이해

홍보물 속에 담긴 성차별적 문화



이 시간에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교사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자연스럽게 남학생을 찾게 된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육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속 성차별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보인다면 교육생들은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교실 속 알파걸(alpha girl)

그 외 성평등 정책의 변화 과정과 여성참정권 운동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법제적인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막바지에 교육생은 “최근 남학생들은 자신보다 신체적인 능력도 좋고 학교 성적도 우수한 이른바 ‘알파 걸(alpha girl)’들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만큼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성평등’을 주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이다”라는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대해 강사님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성평등한 사회가 되었을 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03

사이버성폭력 이해하기

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소감



교육생1

내 자신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강사로서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생2

성평등 이슈에 대해 평소에 지나치기 쉬웠는데, 반성도 되고 생각하게끔 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성평등 교육의 범주는 매우 다양합니다. 센터에서는 양성평등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주제의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양성평등과 역사여성인물을 주제로 강의하는 지역 내 교육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 전부터 교육생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교묘해지는 사이버성폭력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첫째 날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님이 사이버성폭력을 주제로 ‘사이버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내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영상을 삭제해준다는 미명 하에 또다시 수익을 얻는 ‘웹하드 카르텔’이 점차 걱고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공간 만들기

사이버성폭력의 대응 -지금까지의 첨단부대 및 법개정 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09.26 정부대책							사이버성폭력의 대응	
단 계	판매· 광고	유보·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차		
주 관 과 제	■ 판매·광고 설정기기 사용금지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스마트 폰 불법 거치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스마트 폰 불법 거치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스마트 폰 불법 거치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디스코드 등록제 제한	■ 스마트 폰 불법 거치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 디지털 설정기기 제한

실제 피해 사례를 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육생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학교 혹은 경찰에 알리기”였습니다. 강사님도 “가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짚어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 하나의 산업 카르텔을 형성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가 뒷받침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육생들은 “학생들에게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싶다.”며 삼삼오오 모여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감



교육생

요즘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전방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대부분 학부모인 이번 교육생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폭력예방 교육이나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관련 교육에서의 질적, 양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강사

04

혐오표현 이해하기

두 번째 수업은 최근 학교 현장의 고민거리인 혐오표현을 주제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혐오표현으로 표적 집단이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고 표현의 강도 또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혐오표현이 교실에 들어오다

3. 협약으로 규제하는 국가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권법으로 규제하는 국가 (영국, 캐나다),
인종차별금지법으로 적용하는 국가 (호주, 프랑스),
지방의 조례 (일본 오사카)
◆ 협약에 대한 규제를 헌법으로 억제하는 국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교육생들도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표현을 스스럼없이 내뱉어 놀라는 일 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혐오표현도 결국은 차 별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교육생의 의견에 강사님도 “여성 혐오 표현은 성평등 의식부재로 인한 문제가 맞다.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 전에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검사하고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법	조항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10조 제7항 ①(정보보유의 범위) 정보주체 ②(정보 24시간 보호장치) ③(정보 24시간 보호장치)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보, 흐름, 접속, 시 작, 사용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다음 과 같이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
방법통신 사업자법	제8조 제3항 제1호(수신 의뢰인화기자회사를 지정하는 각각 개별	「개인적」 이용자의 명성, 흐름, 접속, 시 작, 사용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다음 과 같이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



해외에서는 혐오표현이 어떤 규제를 받을까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와 법적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표현이지만 유·무죄가 달랐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알아보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려운 이유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혐오표현 규제의 법적 근거도 살펴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교실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많이 듣는다. 비하표현에 대해서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강사님과 교육생 모두 다양한 의견을 내며 지도방안에 대해 열성적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05

성평등한 교육현장 만들기

마지막 수업은 성평등한 교육현장 만들기를 주제로 교실에서 겪었던 그간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학교마다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을 준비했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에 대해 “4차 산업 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를 더 앞당긴 것은 맞다”며 이제는 우리가 발빠르게 적응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X세대와 Y세대의 가교 Z세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인 ‘Z세대’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Z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공정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로 학생들에게 성평등이 남녀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좀 더 원활한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였습니다.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위해 나가야 할 길

강의 후 진행된 Q&A 시간에는 교육생들의 질문이 잇따랐는데요, “교실에서 여학생은 폭력을 겪어도 남학생에 비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걱정된다.”는 의견에 강사님은 “학교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보다 피해 학생이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면 교사들조차 성평등 교육을 인권 교육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아쉬운 것은 성평등 교육의 법제화다.”라는 한 교육생의 의견에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이기에, 교육생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 또한 함께 공감했습니다.

1.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

소감



교육생

요즘 현실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른 주제로 교육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활동가 성평등 교육은 매년 새로운 주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센터 담당자

교육사업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한 서초구 만들기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한 서초구 만들기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한 서초구 만들기

일반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풀뿌리단체’라고 부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 단어가 어느 순간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단어가 익숙해진 만큼 ‘풀뿌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초구 내에는 다양한 풀뿌리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과 함께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교육을 실시했지만,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활동가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일시	대상	회차	시간	강의 내용
9.19(토)	풀뿌리 단체 활동가	1강	09:30~12:30	성평등 기본교육 및 교육현장 이해 ·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이해 · 양성평등 법제 이해 · 성평등 교육현장 이해
9.26(토)		2강		디지털 젠더폭력 이해 · 청소년기 특성 이해 · 디지털 젠더폭력 이해 및 지도방안 모색

사업개요

- 사업명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
- 목적 활동가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활동가의 성평등 역량강화 기회 마련
- 기간 2020.09.
- 대상 서초구 관내 풀뿌리단체 활동가
- 주제 1) 올바른 성평등 의식 키우기
2) 디지털 젠더폭력 이해
- 만족도 4.7/5.0(전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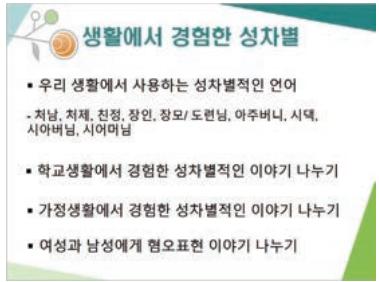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한 서초구 만들기

올바른 성평등 의식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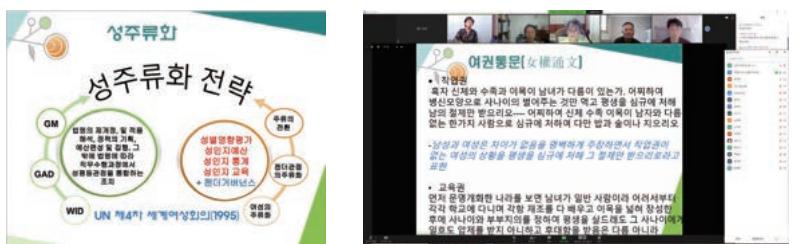
9월 19일과 26일 이틀 간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 강화 교육 그 첫 시간은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키우는 시간으로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전더법학연구소 교수님이 진행해주었는데요, 활동가들은 이번 교육을 발판으로 성평등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회학적 성’과 ‘생물학적 성’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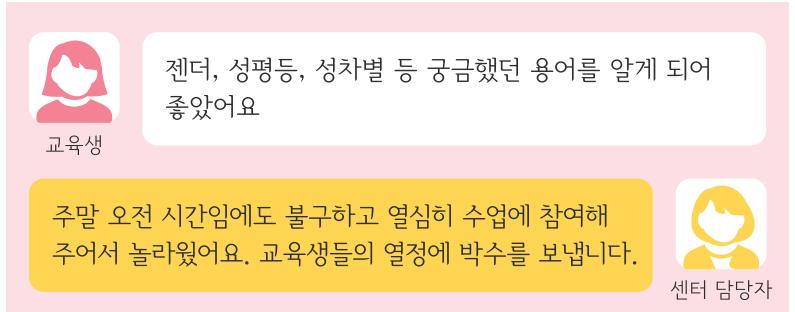
먼저, 수업 전에 교육생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회학적 성’ 혹은 ‘학습된 성’으로 불리는 젠더의 명확한 의미를 배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을 아울러 모든 정책 설계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여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교육, 일상문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해 모두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을 살펴보고 그 중 우수사례인 ‘젠더 거버넌스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학교 성평등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학교 밖 교육 자원 활용과 학교 성평등 교육 법정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소감



디지털 젠더폭력 알기

두 번째 수업은 활동가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인 디지털 젠더폭력에 대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청소년들이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즉, Z세대인 청소년들의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한 만큼 디지털 젠더폭력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치밀함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에 숨은 젠더폭력



이어서 디지털 젠더폭력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피해 사례가 랜덤 채팅 어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 채널에서도 피해가 빈번하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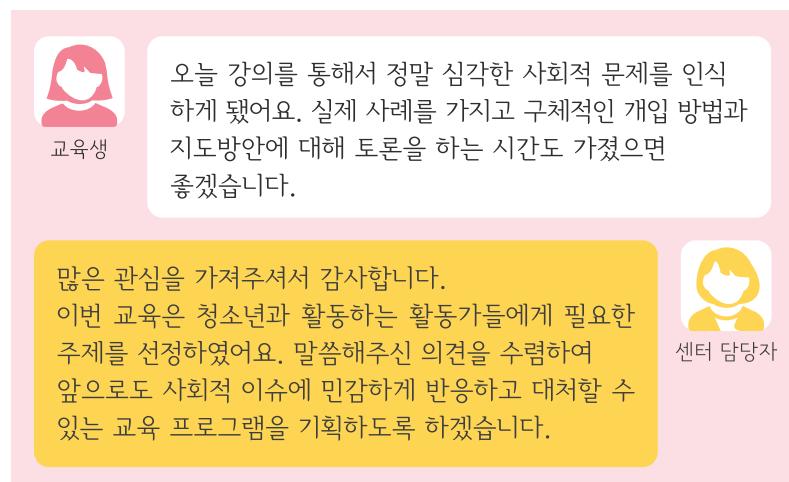
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SNS 채널 어디라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꿈꾸며

디지털 젠더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게 된 교육생들은 온라인 그루밍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보이는 특징을 알고 싶어 했는데요, 강사님은 “청소년이 받는 용돈에 비해 고가의 선물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믿을 만한 어른 혹은 친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도 “사실 그루밍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없다. 그래서 평소 청소년과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과 연루된 오프라인 성폭력 혹은 그루밍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학교와 상담소는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바로 신고 절차에 들어간다. 피해 청소년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아도 심리치료와 상담, 가족 상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전문기관에 연락하는 방안도 소개해주었습니다.

소감



교육생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됐어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입 방법과 지도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담당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과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어요. 말씀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I

성평등한 강사로 발돋움하기

두 번째 역량강화 교육은 서초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코칭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 파견을 통해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 정책을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성평등한 활동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I
목적	활동가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 기회 제공
기간	2020.10.~11.
대상	서초구 관내 풀뿌리단체 활동가
주제	1)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 향상하기 2) 성평등 정책 쉽게 이해하기
만족도	4.2/5.0(전원 참여)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I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I
성평등한 강사로 발돋움하기

교육 커리큘럼

일시	대상	회차	시간	강의 내용
10.28(수)	풀뿌리 단체 활동가	1강	14:30~16:30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이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성차별
11.03(화)		2강	15:00~17:00	성평등 법제 및 정책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관련 법제 및 정책 이해· 여성운동사 이해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 향상하기

10월 28일과 11월 3일, 이틀 간 풀뿌리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평등 역량강화 교육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시간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성인지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전에는 세계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다.
현재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획하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모여든다.
지금보다 좀더 공정한 세상을, 스스로에게 좀더
진실함으로써 좀더 행복해진 남자들과 좀더 행복해진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땅들을
다르게 키우는 것이다. 우리 아들들을 다르게 키워야 한다.
«우리는 혜피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다. 품고자 애디치에 자»



강사님이 성인지감수성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묻자 교육생 대부분이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사회는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고 소통이 잘 되는 성평등한 사회이며, 성평등한 사회는 개인의 특성이 존중받고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화, 기사 제목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자료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관점(인식)’ 차이

이어서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피해자다움’에 대해 살펴보며, 사회 전반적으로 “OO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되새겼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른들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감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돋는 적극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2.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풀뿌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II
성평등한 강사로 발돋움하기



교육생2

강의를 통해 우리 아이의 성인지감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아이가 너무 민감하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성평등 정책 쉽게 이해하기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면서 강사님은 먼저 교육생들이 일상에서 겪은 성차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요, 교육생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 이전보다 성차별적인 언어와 표현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각양각색 분야에 '익숙해진' 성차별

다양한 영상을 통해 미디어 속 성차별 사례를 찾아보며, 과학과 의학에서 조차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을 팬데믹으로 몰고 간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과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분투해 온 여성운동사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 위해 싸워야만했던 과거 역사와 더불어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서인 '여권통문'을 살펴보고,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는 어떤 지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평등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은 많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여학생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는 교육생의 의견에 폭력의식 부재의 문제점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과정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과 함께 성평등을 고민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될 예정입니다.

소감



교육생1

평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요.
이번 수업으로 성평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생2

최근 여성들은 이미 여러 면에서 과거 여성들에 비해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강사

현 사회에서 고위직 혹은 관리직에 있는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고 많은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는 것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
가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성평등 전문가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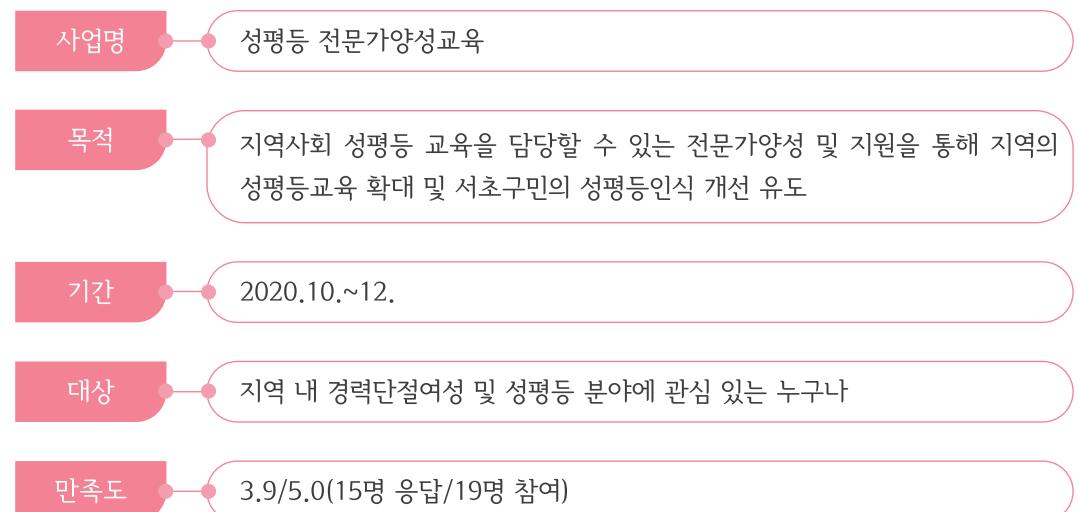
성평등 전문가양성교육
성평등 전문강사를 꿈꾸며

성평등 전문강사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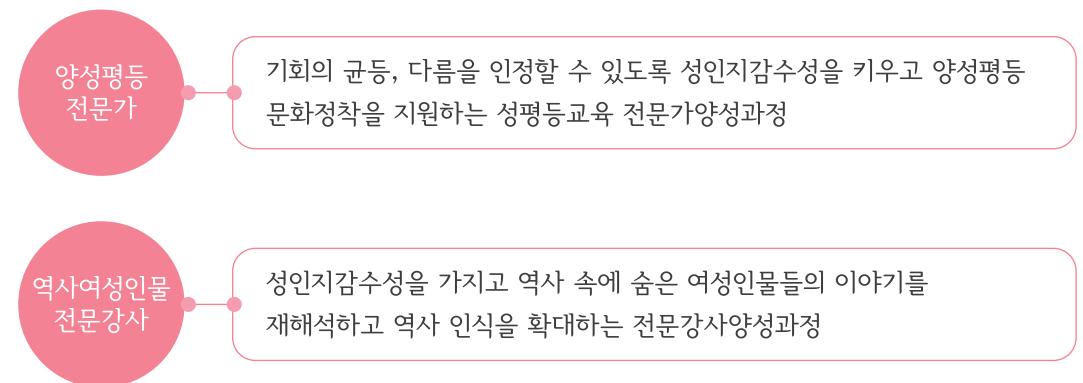
관내 성평등 교육을 서초구민이 책임질 수 있다면 지역의 성평등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두 돋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전문가 및 역사여성인물 전문강사양성과정을 통해 관내 성평등 전문가양성부터 학령기별 무료교육까지 이어지는 성평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전문가양성과정은 성평등활동센터와 함께 하기에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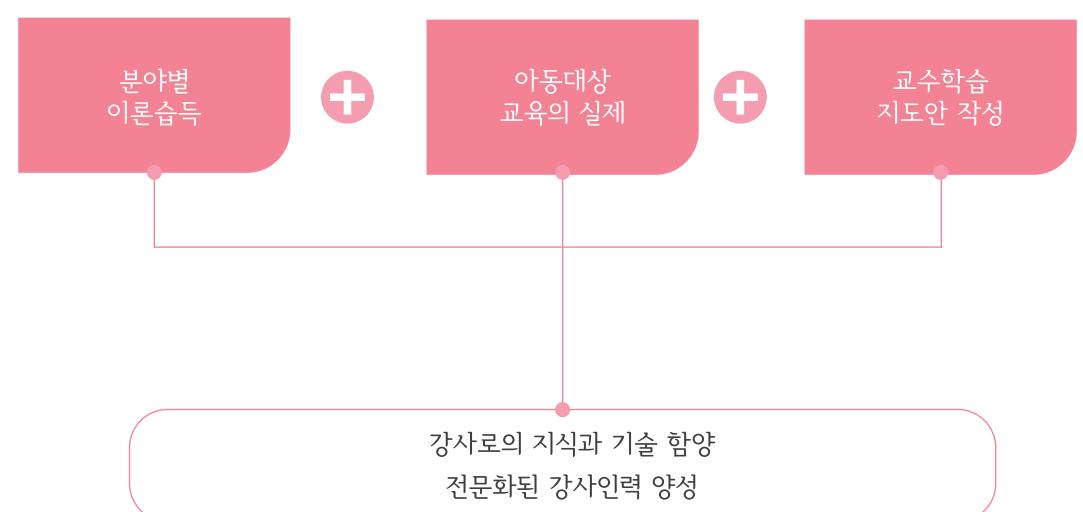
사업개요



교육내용



교육과정



3. 성평등 전문가양성교육

전문가양성과정은 이론중심 교육을 들으면서 강사로서 기본역량을 쌓고, 어린이 대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법을 통해 전문가를 배양합니다. 인큐베이팅 과정에서는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교안을 만들어 가는데요,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전문가로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어느 한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긴 시간의 교육과 최종 시강을 거쳐 올해는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의 무료 성평등교육 및 역사여성인물 교육의 활동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수료생들의 본격적인 활약이 펼쳐질 내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교육사업

4.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무료 성평등교육

성평등 꿈나무를 키우는 교육

성평등 꿈나무를 키우는 교육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성평등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 스스로 성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성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키운다면 성평등한 사회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학령기별 맞춤형 성평등교육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및 역사여성인물 교육

목적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무료 성평등교육을 통해 지역 성평등 문화확산 도모 및 역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성평등한 역사인식 제고

기간 2020.10.~12.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

교육내용 양성평등 교육 및 역사여성인물교육

‘나다움’을 찾아가는 수업

대표적으로 지난 11월에는 대곡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다움 찾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의 양성평등전문강사들이 교실로 찾아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찾아보고, 자유롭고 당당한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표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다움’에 대한 생각은 매우 깊고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당당한 나다움을 겸비한 어린이들이 자라나면 어떤 미래를 그려낼지 그들의 성장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성평등교육과 역사여성인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등교가 제한되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및 지역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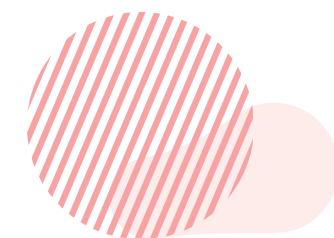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 기업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 센터는 풀뿌리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평등 인식 함양과 4대폭력 예방을 담은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소수여서 도리어 더욱 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일시	대상	회차	시간	강의 내용
09.18(금)		1강	09:00~11:30	성평등 인식 함양 및 4대폭력 예방교육 · 4대폭력(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개념 및 특징 이해
10.21(수)	서초구민	2강	13:00~15:30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이해 · 디지털 성폭력 현황 이해 · 폭력없는 직장문화 만들기
10.21(수)		3강	13:00~15:30	

사업개요

- 사업명 4대폭력 예방교육
- 목적 지역구민의 성평등 인식 함양 및 4대폭력 예방문화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자치구 실현
- 기간 2020.09.~10.
- 대상 서초구 관내 구민 및 직장인
- 주제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 만족도 4.7/5.0(23명 응답/30명 참여)



5. 슬기로운 양성평등교육

슬기로운 양성평등교육
평등한 조직문화 및 지역 만들기

함께하는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9월 18일과 10월 21일 서초구의 한 기업을 방문하여 성평등 인식 함양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확인했는데요, 교육생들은 자신있게 어플리케이션의 문항에 답하기 시작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가장 먼저 4대폭력의 정의를 짚어보았는데, 대부분 성희롱과 성폭력은 알고 있었지만,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4대폭력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4대폭력의 개념과 각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며 이런 폭력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교육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다수 교육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강사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평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4대폭력의 근본 원인을 짚어 주었습니다.

무섭게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4대폭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진과 영상 등 피해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차이가 있으며, 가해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막차가 끊기기 전에 회식을 마무리하여 밤길이 무서운 직원을 배려하기”,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업무 분장하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서초구 관내 기업 및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의 성평등 교육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소감



교육생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사례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사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그래서 교육생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 | | |
|--------------------------------|-----------|
| 1. 역사여성인물 콘텐츠 개발 | 77 |
| 2.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 | 85 |
| 3. 성평등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 93 |
| 4. 성평등정책 기초연구 | 97 |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1. 역사여성인물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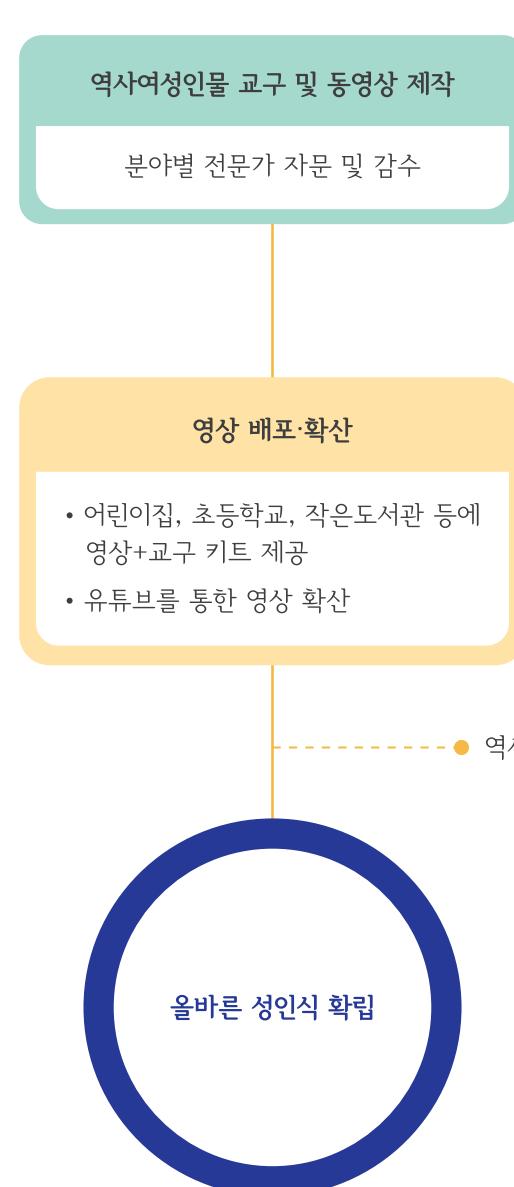
역사 속 위대한 여성들을 찾아서

학령기 아동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인가요?” 하는 질문에 아이들의 우렁찬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순신이요!”, “세종대왕님이요!” 하지만 아이들의 대답 속에 여성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존경할만한 여성위인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비중은 10%도 되지 않고, 치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여성들의 역사는 너무 쉽게 잊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성위인을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역사 속 위대한 여성들을 알려 학령기 아동들에게 다양한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역사여성인물 콘텐츠를 개발·제작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목적** 역사 속 여성인물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들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 도모
- 주제**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위대한 여성들 「Herstory 한국사」
- 제작기간** 2020.09.~11.
- 제작방법** 아동들의 학습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교구 개발 후, 교구를 활용하여 스톱 모션 형식의 영상 제작
- 제작편수** 총7편
- 선정인물** 박에스더, 윤희순, 김만덕, 최은희, 이빙허각, 소서노, 선덕여왕



1. 역사여성인물 콘텐츠 개발

역사여성인물 콘텐츠 개발
역사 속 위대한 여성들을 찾아서

추진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작업체 조사 및 미팅	●				
역사여성인물 기초자료 조사	●	●			
제작업체 선정 및 사전 기획회의	●	●			
자문단 구성	●	●	●	●	
교구제작 및 검수	●	●	●	●	
시나리오 구성 및 검수	●	●	●	●	
영상제작 및 검수	●	●	●	●	
교구 및 영상제작 완료		●	●	●	
홍보 및 배포			●		
평가 및 결과보고				●	
역사여성인물 선정					

역사여성인물들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물을 선정해야 할지, 콘텐츠의 형식은 어떤 것이 적합할지,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1차 인물 리스트를 구성하였고, 회의를 통해 7명의 인물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인물	키워드	강의 내용
윤희순	애국심	[독립운동을 이끈 여성 의병장] ·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여성 의병장으로, 독립운동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성의병대를 만들어 활동하였음
김만덕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주 백성을 살린 거상] · 제주도의 상인으로, 제주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전재산을 풀어 쌀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였음
최은희	투철한 직업정신	[한국 민간지 최초의 여성기자] · 여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여성 후배들을 위해 전재산을 기부하는 등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펼쳤음
이빙허각	여성지식인	[백과사전을 만든 여성실학자] · 몸소 체득한 생활지식과 공부한 실학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1809년에 가정생활 백과사전인 ‘규합총서’를 집필하였음
소서노	건국의 주역	[두 나라를 세운 소서노] ·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이후 백제를 건국할 때에도 큰 공헌을 하였고 백제의 국모로 추앙받았음
선덕여왕	애민정신	[신라의 지혜로운 여왕, 선덕여왕] · 한국사 최초의 여왕으로 애민정신이 담긴 첨성대를 건립하였으며 선덕여왕의 업적은 이후 진덕여왕, 진성여왕이 즉위하는 기틀이 되었음

인물	키워드	강의 내용
박에스더	봉사 정신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을 전공한 여성의사] ·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을 전공한 여성의사로, 여성·빈민·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다니며 위생교육과 의료봉사에 힘 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구 및 동영상 개발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학령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고, 영상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구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역사적 왜곡이 없도록 감수하고,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물을 조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역사여성인물 콘텐츠 개발

역사여성인물 콘텐츠 개발
역사 속 위대한 여성들을 찾아서

자문위원

구분	자문위원	주요 자문내용
젠더전문가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인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및 성차별 요소 검토
아동전문가	이지영 인천신현북초 교사	· 영상 내용 및 연출의 학령기별 아동 적합성
역사전문가	(사)역사·여성·미래	· 역사적 사실 검증, 사료 검토

진행 프로세스



제작된 영상은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쉽게 역사여성인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확산하고, 영상과 함께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구

아이들이 각 인물들을 종이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교구는 단순하면서도 인물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제작하였고, 인물에 대한 주요 업적을 정리한 인물카드도 삽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교구는 동영상과 함께 배포되어 아이들이 역사여성인물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친근하게 기억할 수 있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 Q.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인가요?”
A. “박에스더요!”, “윤희순이요!”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2.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

모두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2.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
모두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모두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교육이지만 바쁜 업무 탓에, 또는 비용 부담으로 귀찮은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교육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목적	서초구 관내 복지관, 시설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도모
주제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작기간	2020.10.~12.
제작방법	분야별 전문강사의 강의로 영상 구성
제작편수	총5편



2.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교육구성

강사	주제	내용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성폭력 예방교육	<p>[Stop! 성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의미 · 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 인식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성매매 예방교육	<p>[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성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성폭력 · 그루밍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민대숙 (행복한일 노무법인 대표)	성희롱 예방교육	<p>[성매매 바로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성매매 관련 제도 · 성매매/성착취 방지 <p>[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성매매의 연속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로 보는 성착취/성매매 피해 ·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진화과정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가정폭력 예방교육	<p>[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의 법적 정의 · 성희롱 판단기준과 판결 사례 <p>[성희롱 사례와 2차 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 ·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p>[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p>[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 가족관계 재정립에 따른 대응 및 지원

교육자료

2 법적절차

01. 나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 누구나 행정성찰법률을
알면 알기 그 이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세금과 부동산 등 행정부처를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자살이나 사고를 막아야 할 조사 사항
- 페인트를 뿐 있는 차에 액체로 차운
작업은 신고해야 한다.
• 차운 작업은 차운장에 차운장
신고해야 한다.

02. 나설 확인 후 처벌을 조치 의무

[행정처벌]
피해자 요청 시 처벌을 조치 의무
[국무장관에게 예상된 유통망 기여한 경우]

[행정처벌]
사실查明 후 차제법이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
[국무장관에게 예상된 유통망 기여한 경우]
*처벌을 조치 한 때와의 차간 청탁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 피해 근자 등에 대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건처리 | 조직내고충처리절차

1. 통지 | 지원·내선통 | 상급부 서면처리의뢰(경과) | 2018.09.20. 10:00

- 차제의 적용
 - 차제의 보호 조치
 - 차제의 권리
 - 차제의 책임
 - 차제의 권리와 책임

1 가정폭력은 무엇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가정폭력범죄 유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 혐오, 제도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강간, 강간 등
살인, 치사,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2017년 1월 27일부터 주거법 위반처벌 등 상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전한 한정도 가정폭력범죄로 포함

처벌되는 가정폭력의 실제로 경험하는 폭력과의 고리존재
가정폭력범죄의 오스스로 미친 폭력 상황·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2 가정폭력의 특징

온밀하게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상해침

대립되는 경향

한국인집단조사·가정폭력범죄의
성범기록 확장화 세미나 개최(2001),
행복한 가족으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90%는 성범기록 확장화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내년도

2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이해

경찰 사건 처리

가정폭력 발생 → 고소신고 → 경찰 → 수사 → [종합] → [수사] → [기소] → [결론] → [처벌]
경찰 → 경찰 → 형구조사방법 → 경찰

기초수에 등
불기소처 등으로 종결
*생존증거수집을 위한
기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기정보호사건으로 송치

형사사건으로 공조제기

임시조치의 청구
(직권 또는 경찰 신청)

2019년도 행위자 수탁 상담 결과

08 | 상법에 따른 경제적 폭력 유형

유형	내정
경제적 폭력	100
남성	80

생활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남성의 경제적 폭력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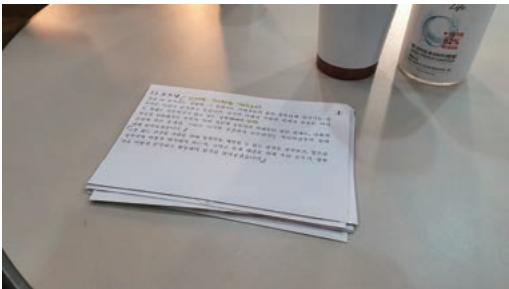
경제력을 수단으로 생활비를 통제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가정폭력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재산권리를 이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에
조성을 위한 계약인 인가설정 및 사외적 노력 필요.

2.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 모두를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촬영현장

세트장부터 조명까지, 생각보다 큰 스케일에 긴장하신 강사님들도 있었지만 곧 평소처럼 능숙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촬영장 한 편에서 듣는 강의도 충분히 유익해서, 편집까지 마친 최종본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교육영상



이번에 촬영한 동영상은 2021년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영상을 모두 보고 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1년에는 서초구의 많은 복지관, 공공시설 등에서 부담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3. 성평등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3. 성평등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성평등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성평등 교육은 개인별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감수성 수준에 따라 교육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대상의 수준을 고려한 성평등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어떨까?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물음 속에 센터는 성평등 교육콘텐츠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연구개요

목적	교육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사업의 기틀 마련 및 맞춤형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기간	2020. 8.~11.
내용	맞춤형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방향 수립 등
방법	문현 및 선행연구 검토, 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자료, 영상물 검토 분석 등

연구내용	8월	9월	10월	11월
선행연구 분석	●			
연구 및 조사 설계 단계		●		
문현 및 정책 분석				
선행연구 분석	●			
성평등 교육, 성인지교육 영상물 등 검토 분석	●	●		
키움강사단 성인지 기본교육 콘텐츠 개발	●	●		
양성평등강사단, 역사여성인물 강사단 성평등 심화교육 콘텐츠 개발		●	●	
교육 콘텐츠 개발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종사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		
풀뿌리단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지 교육콘텐츠 개발	●	●		
센터 교육사업 비전 및 운영방안 제시		●	●	
정책개선 방안				
정책개선 방안 도출				
관내 성평등 관련기관의 역량강화 방안	●	●		
관내 성평등 관련기관과의 연계강화 방안	●	●		
보고서 제출	●	●		

3. 성평등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4. 서초구 성평등정책 방향성과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센터는 올해 개발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각 대상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4. 서초구 성평등정책 방향성과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서초구 맞춤형 성평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서초구 맞춤형 성평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출범에 따라, 성평등분야에서의 서초구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센터의 활동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수행과제 발굴을 통해 서초구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사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개요

목적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의 방향성 정립 및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사업발굴 및 시행
기간	2020.08.~12.
내용	서초구 성평등정책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서초구 성평등정책 방향성 및 과제도출 등
방법	정책자료 검토 및 분석, 서초구 성평등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성평등사업 사례 조사

연구 세부추진 계획

연구내용	주요 추진사항	
[1단계] 계획 및 설계	시행계획서 작성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내용 구체화
	사전 전문가조사 · 전문가 자문 및 내용구체화	
[2단계] 자료 분석	서초구 정책환경 분석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서초구 정책환경 분석	서초구 정책환경 분석 및 성평등 정책현황 조사
	정책자료 분석 · 서울시, 중앙정부, 기타 시·도 성평등 정책 현황 검토	
[3단계]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 서초구 성평등정책관련 의견조사 전문가, 구 관계자 등	서초구 성평등 정책진단 및 사업사례 조사
	사업사례 조사 · 성평등사업 사례조사 및 분석	
[4단계] 정책방안 도출	정책방안 도출 · 정책방안 및 추진 사업개발	시사점 도출
[5단계] 결과보고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4. 서초구 성평등정책 방향성과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행계획서 작성	●	●																		
사전 전문가 자문	●																			
서초구 정책환경 분석		●	●	●	●															
전문가 의견조사					●	●	●	●												
사업 사례조사 및 분석					●	●	●	●												
결과보고 작성 및 검수									●	●	●	●								
최종본 인쇄											●	●	●	●						

서초구 맞춤형 성평등 사업의 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활동가 및 지역주민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자문	인터뷰	
성평등분야 전문가		
	서초구 풀뿌리활동가	성평등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 심도 있는 인터뷰를 위해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구에도 연구 내용을 공유하여 성평등정책 수립 시,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풀뿌리활동가가
전하는
응원 한 마디

풀뿌리활동가가 전하는 응원 한 마디

2020년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자료집
성평등을 서초에 담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가 생겨서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다. 풀뿌리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시면서 두루두루 협력과 협업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돌아봄협동조합

2020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해에 시작을 하게 되어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의 설립과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고 싶습니다.

뱅카, 최영범 활동가

2020년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가 생겨 너무도 기쁩니다.
앞으로 서초구에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됩니다.

모두의 거실, 남영주 활동가

아직은 울퉁불퉁한 성평등의 길을 잘 닦아주세요.
여성과 남성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고른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1년 센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서초생생 TV, 조혜영 활동가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와 함께 일상 속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소담, 박주영 활동가

올해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가 초석이 되어 다른 지
자체의 성평등활동센터 설립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에도 센터와 풀뿌리활동
가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해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한살림서울 남서울지부 서초지구

성평등을 서초에 담다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인 | 박현경

발행처 |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http://seochoequity.org>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8길 38

전 화 | 02.522.0292